

국어, 치열하게 독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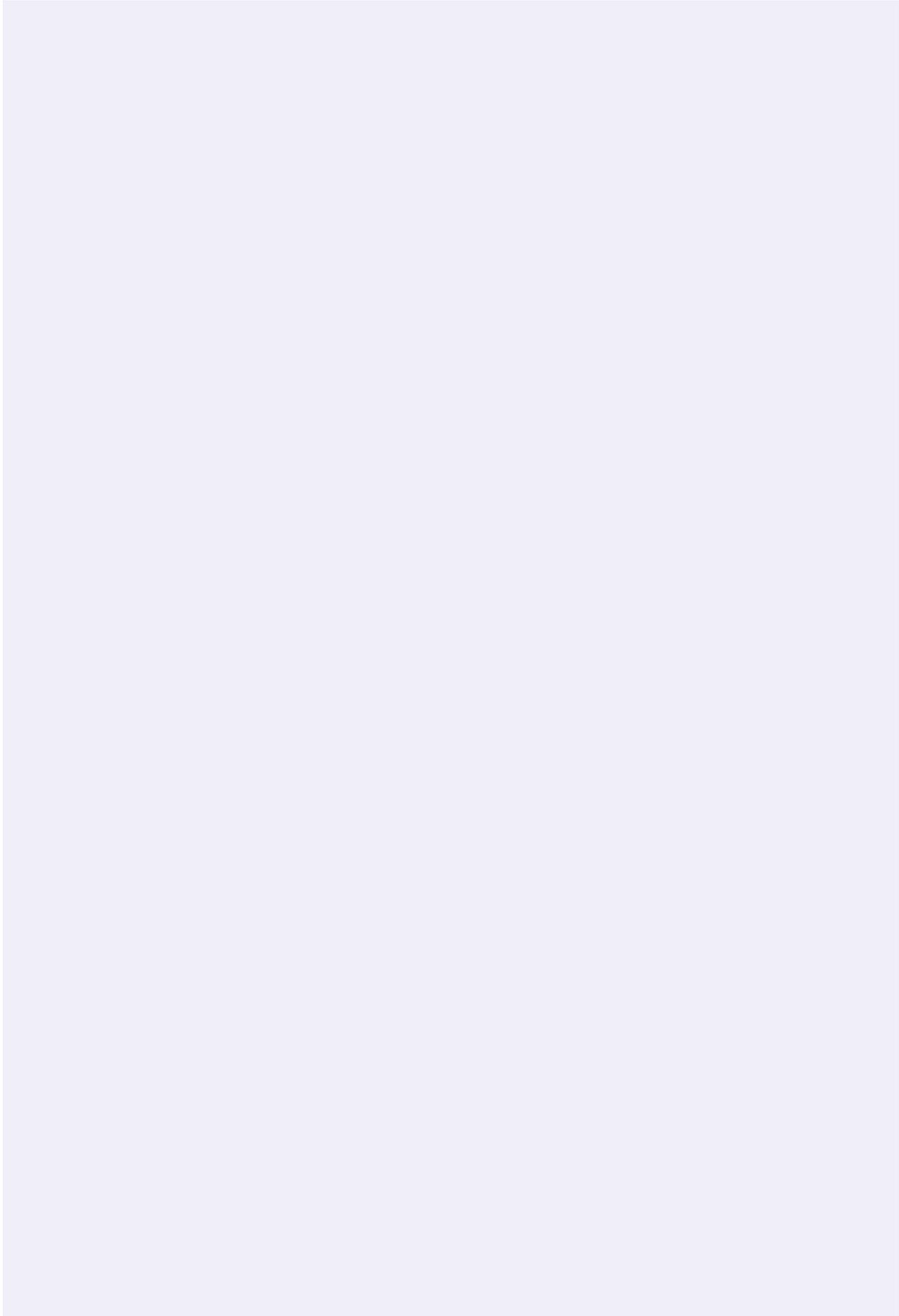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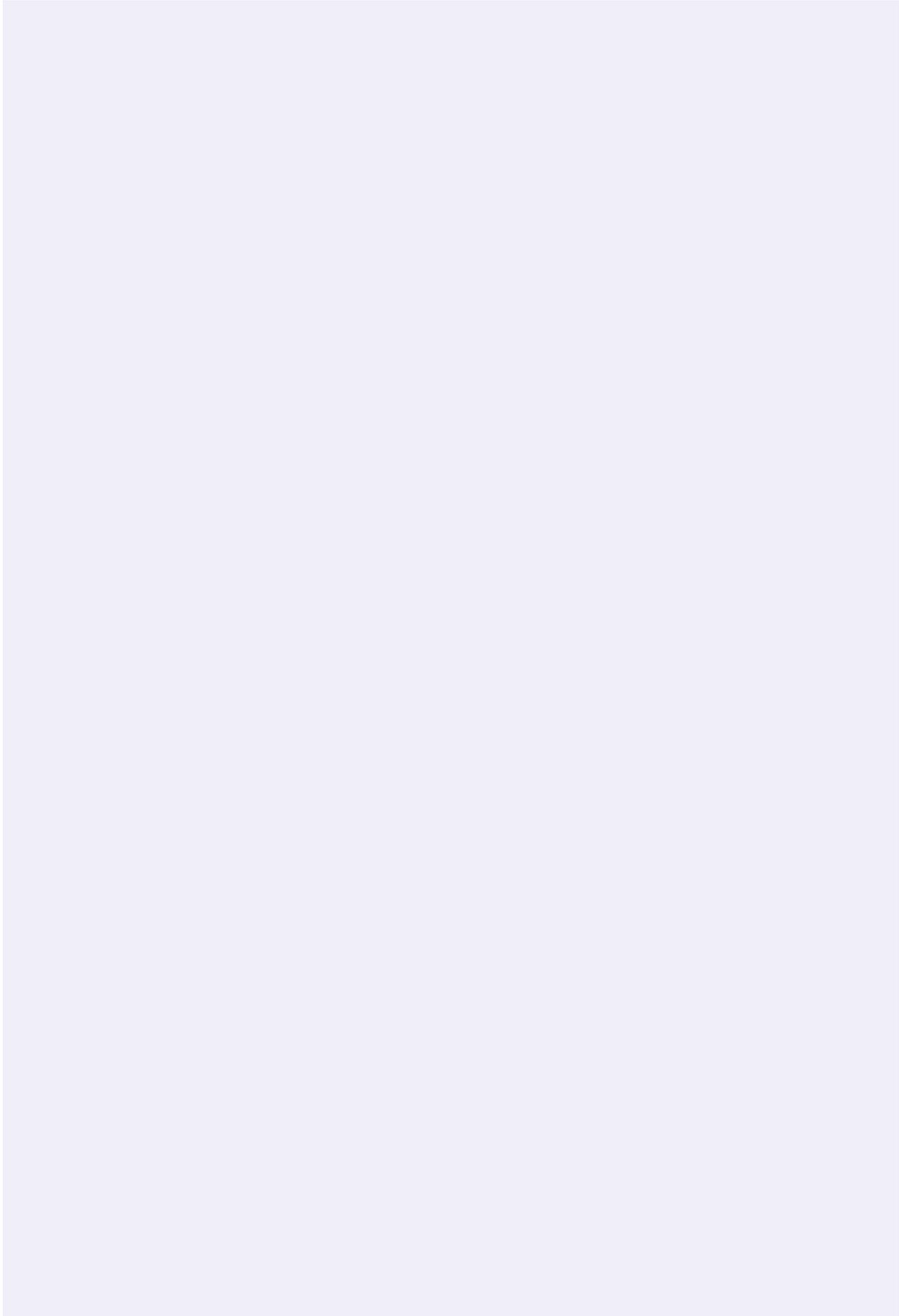
총론

문학 총론

# 1강

문학은  
사실과 감각의  
향연이다.







### (1) 문학은 실재이다.

#### 의도

[O]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6학년도 수능 A형>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하옵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제1수>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옵도 역군은이샷다 <제2수>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떡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옵도 역군은이샷다 <제3수>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옵도 역군은이샷다 <제4수>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01. <보기>는 (나)의 글쓴이가 창작을 위해 세운 계획을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제1수>~<제4수>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상의 단서를 드러내야겠군.
- ㄴ. 각 수 초장의 후반부에서는 내면적 감흥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해야겠군.
- ㄷ. 각 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여 내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 ㄹ.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문학 TIP

**제목:** 시에서 메인 화제를 가르킬 때가 많음. 과잉 추론은 하지 말고 지문을 읽을 때 제목과의 상관성을 파악하자.

**선지 민감성:** '각, 마다' 등의 관형어, 보조사 등에 유의하면서 글을 읽어 나가도록 하자.

#### 문학 기본기

- 화자:** 작품 속에서 말을 하는 이
- 대상:** 화자가 말하는 다양한 존재들
- 관념:**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개념, 생각
- 감각:**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들  
(주로 구체적 사물을 통해 실현된다.)

[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득음을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왓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A]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B]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C]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D]  
 저 왓새들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화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E]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리지도록 무르익힌다  
 - 배한봉, 「우포늪 왓새」 -

\* 왓새: 왜가리의 별명.  
 \* 동편제: 판소리의 한 유파.

02.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왓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날아가는 왓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플러스 알파 문제**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 ×)
- ②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입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 / ×)
- ③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 ×)

**문학 TIP**

**보기:** <보기>를 첨예하게 읽으면서, 작품 속에 나타난 병렬적인 부분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가며 읽어 보도록 하자.

**지문:** 주석(날개)은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자.

**문학 기본기**

**공감각:** 어느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것  
 예 푸른 종소리, 종소리가 가루가루 음향이 된다.

**입체감:** 단편적이지 않음(abnormal)

**투영:** 반영하여 나타냄

**대비:** 문학 선지에서 대비는 상반을 의미함



방향

[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8학년도 수능>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나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찌랴 이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려 감.

03.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 ① 제1수는 시상 전개에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②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③ 제3수의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플러스 알파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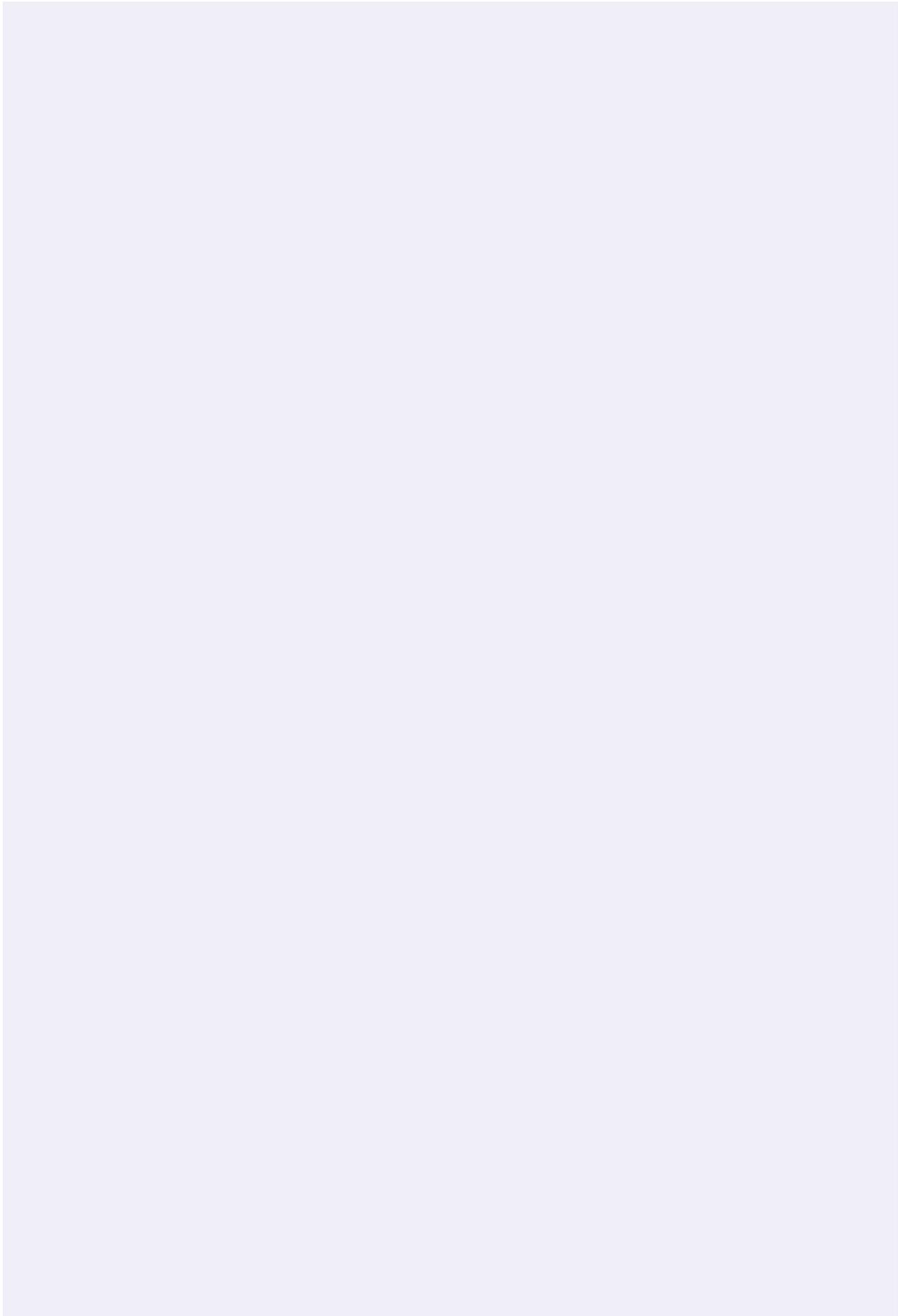
- ①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

문학 TIP

연시조는 연결이다.
초장과 중장, 중장과 종장은 물론이고,
앞 수의 종장과 뒤 수의 초장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 기본기

직유: 원관념을 설명하기 위해 보조적 사물들을 통해 빗대어 표현하는 것. (TIP: 원관념에 집중할 것)
내적 갈등: 불만족, 고뇌





[04~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학년도 6월 편집>

(가)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A]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B] 요즘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뿔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짱 짱 얼어붙은 잔등으로 후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04.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 상 전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
- ②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적 현재의 의미를 생성해 낸다.
- ③ '옛날처럼 나는'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④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 드러난다.
- ⑤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05. [B]를 중심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모습이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 화자에게로 이어짐을 보여 주는군.
- ②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뜻함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한 줌 뿔가루'의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④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과 '짱 짱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를 통하여,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 주셨던 아버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래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를 연결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군.

플러스 알파 문제

- ① 시간의 변화가 사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
- ② '외풍'은 아버지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재이다. (○ / ×)
- ③ '여린 물살'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는 자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 / ×)

문학 TIP

〈보기〉: 평론도 좀 긴 〈보기〉라고 생각하면서 침례하게 읽자.  
지문: 문학은 연결이다.  
선지: 아무리 난해해 보여도 결국 사실 관계에서 결판날 때가 많다.

문학 기본기

말 건네는 방식: 청자 설정  
대비: 상반  
시간의 변화: 시간의 차이 및 상황의 차이에 주목하라.



질서

[06~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나)

오이밭에 벌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별로 오면 벌 소리

산에 오면  
큰솔밭에 빠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별로 오면  
눈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 별로 오면 벌이 들썩 벌 소리 속에 나 홀로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벌에 오면 벌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백석, 「적막강산」 -

(다)

장부의 하울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울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남산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렐시고  
두어라 우로(雨露) 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2장>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실 하는지고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4장>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5장>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취인 꽃 여원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6장>

- 이신의, 「단가 육장」 -

- \* 벌배채: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 덜거기: 높은 장끼.
- \* 부근: 큰 도끼와 작은 도끼.
- \* 적객: 귀양살이하는 사람.
- \* 공량: 들보.

06.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1장>    ② <2장>    ③ <3장>    ④ <5장>    ⑤ <6장>

07.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의 1행은 '벌배채'가 여물어 가는 때라는 의미로 '산'과 '벌'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② 1연의 2행~3행은 '산'과 '벌'에 대한 경험을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 ③ 2연과 3연은 '산'과 '벌'에서의 청각적 체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 4연은 '산'이 '벌'과 상반된 공간적 의미를 지님을 드러낸다.
- ⑤ 5연은 '산'과 '벌'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집약하여 마무리 한다.

플러스 알파 문제

- ① (나)는 자연물과의 관계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 / ×)
- ② (나)의 제목은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 ×)
- ③ (나)의 '정주 동림'은 화자가 경험한 구체적 공간이다. (○ / ×)
- ④ (나)의 '하룻길'은 시공간적 성격을 띤다. (○ / ×)

문학 TIP

**지문:** 문학도 독해다.  
 그러므로 대비, 문제 해결, 과정 등의 구조적 질서가 있다.  
 하여, 해당 구조에 좀 더 민감해 질 것을 요구한다.  
**선지 민감성:** 관형어와 부사어에 집중하라.

문학 기본기

**대비:** 문학에서의 대비는 상반이다.  
**객관적 상관물:** 상황, 정서,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시에 배치된 모든 사물들이다. 이 자체 단어로는 잘 안 쓰이지만 환기, 투영 등의 단어와 어울려서 쓰인다.  
**시공결합의 예:** ㉠ 길은 저녁에서 아침, 아침에서 저녁으로 통했습니다.



## (2) 문학은 조준이다.

[0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

향단(香丹)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꼬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01. (가)의 시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 이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아!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 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미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문학 TIP

<보기>: <보기>는 평가원의 관점 혹은 정보이다.

문학 기본기

이상: 화자가 바라는 것

현실: 화자가 현재 위치해 있는 상황

수미상관: 앞부분과 뒷부분의 유사성(짝)을 통해 강조의 효과

통사구조가 유사하면 대비가 아닌 이상 그 내용 또한 유사함이 타당하다.





[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2학년도 수능>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심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매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전부 자농(自農)으로 버티어 왔다.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등, 일꾼 셋이 저희 농사 해 가지고 나간다는 등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입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되,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트해 보였다.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거나 해 가지고는 삼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洋館)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중략)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오늘루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구 왔습니다.”

“오늘루 갈 걸 뭘 허 오누?”

“인전 어머니서컨 서울로 모셔 갈 채벌 허러 왔다우.”

“서울루! 제발 아이들허구 한데서 살아 봤음 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시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한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시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낱알이 환자가 늘어 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오는 환자의 삼분지일밖에 수용 못 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인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삼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방공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삼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미었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얽한 것, 얽하기는 하나 삼만 이천 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일만 오천 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삼만 이천 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대야 일 년에 고작 삼천 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일

년에 만 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나두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두 줄었나 봐! 그 다리 침 놀 제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여남은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잘을 씨름을 허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건 왜 고치시나요?”

“너두 그런 소릴 허는구나. 나무가 돌만 허다든?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시쳇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헌테만 쓰는 건 줄 알드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내가 천찰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맹졌다.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 나 죽건 그 다리루 건네다 물어라…….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대두 난 땅은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룩하시는 걸 내 눈으루 본 밭이구,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루 장만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는 같은 게 있구, 독시장발 같은 걸 사? 느르지 논독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구, 저 사랑 마당의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銅像)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현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구팔구 허느냐?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딴 으며 나라가 어딴는 줄 아니? 땅이란 천지만 물의 근거야. 돈 있다가 땅이 뭇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번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에 보지 않드라.”

“…….”

- 이태준, 「돌다리」 -

0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소설 속의 모든 인물은 자아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일부이다. 자아를 작품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라고 하면, 그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세계가 된다. 이러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 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 ①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이다.
- ② ‘아버지’는 자아로서의 완고한 성격을 세계에 대해서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 ③ 자아로서의 ‘창섭’은 세계의 부정적 속성들을 들추어 고발하고 있다.
- ④ 자아로서의 ‘아버지’는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⑤ 자아로서의 ‘어머니’는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고 있다.

문학 TIP

<보기>: <보기>는 평가원의 관점 혹은 정보이다.

문학 기본기

평론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자아와 세계에 대한 논의이다.  
 자아는 주체, 세계는 주변 상황이며,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제도의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 등이 등장할 수 있겠다.



### (3) 문학은 효율을 위한 협상이다.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A·B형〉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겼구나  
이삼(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들어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제1수>

빙자옥질(冰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억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제3수>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山窓)에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侵擄)하니  
아무리 얼우려 한들 봄뜻이야 앗을쏘냐 <제6수>

동각(東閣)에 숨은 꽃이 철쪽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

- \* 옥인금차: 미인의 금비녀.
- \* 빙자옥질: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이 아름다운 성질.
- \* 아치고절: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 \* 백설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0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詩興)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 ① ‘거문고와 노래’는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기 위한 풍류적 요소이다.
- ② ‘잔 들어 권할 적에’는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 ③ ‘황혼월’은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④ ‘아치고절’은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가치이다.
- ⑤ ‘봄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02.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문학 TIP

〈보기〉와 선지의 관계: 〈보기〉에 상반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의 정답이다.

선지: 민감하게 사실적 판단을 통해 오해석을 잡아내고, 나머지는 평가원적 해석에 협력한다.

문학 기본기

반어: 의도 혹은 상황과 반댓말을 하여 강조를 하는 방식

역설: 표면과 표면의 논리적 모순, 혹은 비상식적 상황 일반

대화, 대화의 형식: 주고 받는 대화(청자의 응답)여야 한다.

말 건네는 방식: 청자를 설정

예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거나 아름답다고 칭찬

비판: 대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공격적 자세



# (1) 문학은 실재이다.

## <필독! 리마인드>

### <온론 리마인드 1>

[O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1수>

▶ <제1수>의 초장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봄이” 들었는데, 화자는 그중에서도 “강호에” 든 봄에 집중하고 있다. <관형어에 가볍게 유의하여 읽기> 또한, 이에 대해 “미친 흥이 절로 난다”는 자신의 감정을 제시한다. <정서의 직접적 제시>

이런 계절적 배경(봄)을 갖추고 중장으로 넘어가자. 화자는 이제 “탁료계변에 금린어가 안주로다”라고 말한다. “탁료계변”처럼 어려운 한자어가 나왔다고 두려워 할 건 없다. 모르면 과감히 넘어가도 좋다. 일단 “금린어가 안주로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선, 현재 작품 속 화자가 “금린어”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있다고만 이해해도 된다. 초장에서 화자가 ‘강호에서의 봄’이라는 배경을 마주하고 “미친 흥”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을 바라보면, 시적 상황을 훨씬 받아들이기 수월할 것이다. 더 나아가, “탁료계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살짝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두고 ‘강호에 속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 사고> 참고로, “탁료계변”의 의미는 ‘술 마시고 노는 시냇가’이다.

중장에서 화자는 “이 몸이 한가하움도 역군은이샀다”라고 말한다. 초장과 중장에서 화자는 강호에서 느끼는 봄의 즐거움을 노래하다가 중장에서 갑자기 임금님을 찾기 시작한다. 화자는 자신이 이렇게 강호에서 한가롭게 놀며 지낼 수 있는 것을 임금의 덕으로 돌림으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움도 역군은이샀다 <제2수>

▶ <제1수>와 마찬가지로 초장에서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화자는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에 “초당”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밝힌다. <제1수>의 내용과 관련지어 보면, 여전히 강호에서 화자는 한가로이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시조는 연결이다.>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라는 중장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제1수>에서 드러난 화자의 임금에 대한 충성심, 강호에서의 한가로운 삶과 연결시켜 본다면, 온전한 이해는 어렵더라도 강호 속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간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

추측할 수는 있다.

참고로 “유신”이라는 건 믿음이 있다는 것이며, “강파”는 강에서 일어나는 파도를 의미한다. <관형어에 가볍게 유의하면서 읽기> 유신을 물렸어도 일단 괜찮다. 그렇다면 “유신한 강파”는 ‘믿음이 담긴 강의 물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보내나니 바람이로다’는 이 강의 물결이 “바람”이라는 것에 의해 일어난다는 의미이다. 즉, 화자는 강가에서 바람을 느끼며 물결을 바라보고 서 있다. 또한 화자는 자신이 바라보는 이 물결에 (임금에 대한) ‘믿음이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중장을 바라보면, 화자의 생각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자는 “이 몸이 서늘하움도 역군은이샀다”라고 말한다. <제2수>의 배경은 여름인데 화자는 “서늘하움”을 느낀다고 노래한다. 이 서늘함은 어디서 올까? 당연히 강호다. 중장에서의 강가를 떠올려도 좋다. <이것이 바로 감각이 가져오는 필연적 감성이다.> 즉, 화자는 강호에서 여름에 서늘함을 느끼고 있고, 이를 <제1수>와 마찬가지로 임금의 덕으로 돌리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복은 강조일 확률이 높다.>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러뜨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움도 역군은이샀다 <제3수>

▶ 이쯤 되면 눈치를 챌겠지만, 이 연시조는 각 수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구조적 유사성은 대비가 아닌 이상 내용 또한 유사하다.> 초장에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며, 중장에서는 강호에서의 삶이나 그 모습을 노래한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이 모든 게 임금의 덕이라며 임금을 찬양한다. <제3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초장에서는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가을에 살찌 물고기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중장에서 화자는 초장에서 언급했던 살찌 물고기들을 잡기 위함인지, “소정에 그물 실어 흘러뜨워 던져두”는 행위를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정”이 뭔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물을 실는 곳이라는 정도로 짐작해도 충분하다. <일반적 사고> 다만, 화자가 가을이라는 배경에서 물고기를 낚으려 하고, 이것을 통해 강호에서의 삶을 노래한다는 것만 알면 아무 문제가 없다.

중장에서 화자는 자신이 이렇게 소일하게, 즉 약간은 심심하지 않게 낚을 보내는 게 역시나 임금의 덕분이라 말한다. 물론 이 소일은 고기마다 살찌 있는 가을 강호에 ‘던져두는’, 감각이 주는 필연적 감성력을 통해 재확인할 수 있겠다.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하움도 역군은이샀다 <제4수>

▶ 〈제4수〉는 초장에서 알 수 있듯, 나타난 계절적 배경은 “강호에 든 겨울”이다. (관형어에 가볍게 유의하며 읽기) “눈 깊이 한 자”가 넘을 정도로 눈이 쌓였지만, 화자는 중장에서 보듯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는다. 그저 강호에서 겨울을 지낸다고 보면 된다.

또한 화자는 “츄지 아니하”라고 말한다. 이는 여름에도 서늘하고, 겨울에 츄지 아니하므로, 〈제2수〉에서 느끼는 만족감의 종류와 사뭇 유사하다. 다만 계절적 배경이 봄-여름-가을을 지나 겨울로 옮겨갔을 뿐이다. 화자는 겨울에도 임금 덕분에 츄지 않다고 말하며 임금의 덕을 찬양하고 있다.

이 글은 제목처럼, ‘강호에서’, ‘사계절에’, 그 장소와 시간이 가져다 주는 감각의 만족감을 느끼며 임금의 덕을 찬양하는 노래로 볼 수 있겠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끼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니까. (본 강사가 분명히 자아와 세계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평론이 다소 어려워지고, 선지의 해석이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그리고 이전의 기층에서도 분명히 빈출이었던 상황에서, 화자(자아=경험 주체)와 주변 상황(세계=경험주체의 경험 대상)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ㄹ. 그렇다. 각 수의 종장은 “역군은이샅다”라는 동일한 시어로 마무리된다. 이는 당연히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한다.

01. 〈보기〉는 (나)의 글쓴이가 창작을 위해 세운 계획을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제1수〉~〈제4수〉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상의 단서를 드러내야겠군.
- ㄴ. 각 수 초장의 후반부에서는 내면적 감흥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해야겠군.
- ㄷ. 각 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여 내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 ㄹ.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 ㄱ. 그렇다. 각 수의 초장에서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여기서 드러나는 계절적 배경들은 각 수에서의 시상의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제1수〉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강호에서 느끼는 봄의 흥취를, 〈제2수〉에서는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여름철 강가에서 느낄 수 있는 서늘함을, 〈제3수〉에서는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가을을 맞이하여 살이 썩고기와 그를 잡으려 배를 띄우는 화자의 모습을, 〈제4수〉에서는 겨울이라는 배경이 겨울철 강호에서의 화자의 옷차림을 각각 보여준다.

ㄴ. 아니다. 〈제1수〉, 〈제2수〉에서 “내면적 감흥”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를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그저 직설적으로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초당에 일이 없다”라고 표현할 뿐이다.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인지,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인지 구분하라는 문제이다.)

ㄷ. 아니다. 화자는 중장에서 자신이 즐기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긴 하나, 주변의 자연 풍광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진 않다. 이에 속하는 건 〈제2수〉 정도다. 여름의 강가에 서서 물결치는 걸 바라보며 바람을 느



<리마인드 2>

[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왓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 만일, <보기>를 읽고 나서 작품을 독해하러 왔다면, 이 부분은 화자가 '득음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는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보기>는 먼저 읽자.)

아무튼, 화자는 이 부분에서 어느 소리꾼을 떠올리고 있다. 그 소리꾼은 "득음은 못"했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았으며,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사내였다고 묘사된다.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오늘은, 왓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A]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는다

▶ 하지만, 이곳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떠올리고 있는 소리꾼이 그저 아무런 욕망 없이 다녔던 것은 아니었다. 그 소리꾼은 "꿈속에서도 ~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았을 정도로 어떠한 경지를 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소리꾼은 "왓새 울음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 놓"고 있다. (문장 단위로 읽으면서 주어, 서술어의 가벼운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의 현실에서 소리꾼이 "왓새 울음"이 된 것일까? 표현은 그렇지만, 당연히 아닐 것이다. <보기>를 본 뒤 작품을 봤다면,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에서는 화자가 우포늪에서 왓새 울음소리를 듣고, 그를 바탕으로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자가 우포늪이라는 공간에서 왓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어느 "소리꾼"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기>는 평가원의 응축된 해석이며, 이러한 평가원의 해석에 맞게 지문을 읽는 것이 좋다.)

한편, 화자가 말하는 우포늪의 이미지도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다. 화자는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 질러놓는다."라고 말한다. 물론, 우항산의 솔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을 것이고, 자운영 꽃이 또 무슨 꽃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대중 우포늪 근처에는 소나무가 잔뜩 있는 산이 있고, 꽃이 조금 피어있다고 상상하면 된다. 나름대로 아름다운 풍경 아닌가? (감각이 가져다주는 상상력을 동원해 보자.)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B] 툇툇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  
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 다시, 소리꾼으로 돌아온다. 소리꾼은 과거에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이었다.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과 호응한다. (문장이 연결되어 읽히면 그리 읽는다. 추론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보기>에서 언급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라는 내용을 이때 떠올려야 금상첨화다. 허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소리꾼의 외형을 '툇툇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라는 표현으로 인해, 그 소리꾼의 삶이 순탄치는 않았음을 잡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그는 슬픈 삶을 살았나보다. (감각이 가져다주는 필연적 상상이다. 게다가 그 감각이 슬픔이라고 노골적으로 잡아주고 있다.)

[C]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D]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왓새들

[E]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작품은 다시 이곳에서 소리꾼과 왓새를 연결한다. 앞에서 봤듯이, 화자는 우포늪의 왓새 울음소리를 듣고 소리꾼이 찾아 헤매던 절창을 연경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창에는 "소리꾼의 영혼"이 담겨 있다. 소목 장재 토평마을은 왓새와 관련된 것임을 볼 때 현실의 공간일 것이며, 그러하나 완창(소리의 완성) 한 판(판소리)을 잘 끝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보기>의 말처럼 자연과 인간의 어우러짐, 조화로우음을 드러낸 것이라 추론할 수 있겠다. (<보기>는 평가원의 응축된 해석이다.) 또한 이것의 아름다움은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히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들(우포늪, 왓새 울음소리, 화자가 떠올린 소리꾼의 절창)의 아름다움은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

- 배한봉, 「우포늪 왓새」 -

\* 왓새: 왜가리의 별명.  
\* 동편제: 판소리의 한 유파.

02.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왁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① [A]: 화자는 왁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그렇다. [A]에서 화자는 “왁새 울음”이 “우포늪 둔치”에 “자운영 꽃밭”을 걸러 놓는다고 말한다. 이는 왁새의 울음소리와 우포늪 둔치의 풍경을 연결시킨다. 더 나아가, “오늘은, 왁새 울음 되어”라고도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왁새 울음”이 되는 것은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B]: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오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그렇다.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험험단신”으로 드러나는 소리꾼의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텅텅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영겨 수염을 흔들곤 했다”라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③ [C]: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그렇다. 화자는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과 우포늪에서 들은 “술바람 맑은 가락”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있었던가”라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은 꼭 직접 “슬프다, 기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드러낸다.’에 집중하라. 영탄을 통한다면 충분히 화자의 정서를 드러낼 수 있다.)

④ [D]: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그렇다. [D]의 “동편제”라는 말에 집중해보자. 이 작품에서 “동편제”라는 시어에는 각주가 달려있다. ‘판소리의 한 유파’라고 한다. “왁새들”이 날아가는데, 판소리의 한 유파인 “동편제”로 날아가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면 이제 선지를 판정할 수 있게 된다. 이곳에서 “동편제”는 분명 화자가 떠올린 상상적 세계다. 그것도 소리꾼과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곳이다(정확히 무슨 연관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대충 그러한 감이 느껴지긴 할 것이다).

한편, 이 왁새들이 “깃을 치며” 넘어가는 건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다. 이를 통해, “소목 장재 토평마을”이라는 현실적 공간과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동편제”라는 세계가 “왁새”로 결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석(날개)을 읽어야 하는 것은 선지 민감성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⑤ [E]: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아니다. [E]에서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고 언급된다. 작품 내에서 이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상이 있다. 6~7행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바로 “왁새 울음”이다. 즉, [E]는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한다고 볼 수 없다. 동일시한다고 보는 게 옳다. (문학에서의 대비는 상반이다.)



<리마인드 3>

[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 초장에서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효”뿐이라 밝힌다. 그러면서 종장에 들어서는 “이 두 일 말면 금수나 다를쏘냐”라고 말하며 “충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이 두 일, 바로 충과 효를 하지 않으면 금수와 같다. <연시조는 연결이다.> 종장에서는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라고 한다. 무엇을 “마음에 하고자”했을까. 당연히 앞서 언급했던 “충효”임을 알 수 있다. <연시조는 연결이다.>

한편, <보기>는 연시조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것에 따르면 연시조는 각 수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후의 수를 읽어나갈 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며 읽어보자.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筮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 초장에서 화자는 “계교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다고 밝힌다. 이 내용을 <제1수>의 종장과 연결시키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공명이 늦었어라”와 <제1수>의 “십 년을 허둥대노라”를 연결해보자. 그렇다면 “계교 이렇더니”의 내용은 “충효”를 “마음에 하고자”했던, 나아가 ‘서로 견주어 살펴보려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연시조는 연결이다.>

어쨌든, 화자는 종장과 종장에서 “부급동남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라고 말한다. 뭘 못 이룬다는 것일까? 초장에서 말한 “공명”일 것이다. 화자는 종장에서 공명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자신의 걱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편, 알아두면 좋을 게 있다. “공명”은 특히 충과 긴밀한 연결성을 지닌다. 공부를 하여 벼슬길에 나아가 “공명”을 이룬다면,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아니겠는가.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 <제3수>의 초장에 이르러서는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으니라”라고 말한다. 못 이룬다는 건 <제2수>에서 말한 “공명”이나 “충효”일 것이다. <연시조는 연결이다.> 현대, 화자는 그것들을 못 이루어도 “임천”이 좋다. 종장과 종장에서는 이 선호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화자는 “세사 잊고” 한가한 “무심어조”를 좇으려 한다. 물론 ‘조만간’이다. 아직은 약간의 완벽히 따르고 있지 아니하다. 아무튼, 이처럼 <제3수>에서 화자는 강호에서의 삶을 따르고자 한다.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 <제4수>의 초장과 종장을 읽으면, 앞의 <제1수>~<제3수>까지의 내용이 떠오를 것이다. 강호에서의 삶을 따르자 하면 “임금”, 한편, 화자는 <제1수>에서 말했듯, 충을 버리면 “금수”나 다름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고 “충”을 따라가자니 “즐거움”에 어긋나게 된다. 이곳에서의 즐거움은 “강호에 놀” 때, 즉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임천”에서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일 것이다.

종장에서 화자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담아낸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라며 강호의 즐거움을 따를 것인지, 임금을 따를 것인지를 갈등한다.

어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 <제5수>에서는 이런 갈등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제4수>의 종장에 등장했던 “충”과 “즐거움” 사이에서의 고민은 초장의 “어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로 이어진다. 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도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라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행도의 어원적 의미를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갈 데 몰라하는” <제4수>의 종장과 정하지 않음이 유사하게 호응함을 기억하자. <연시조는 연결이다.> 종장에 들어선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자신이 만일 강호에서의 삶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는 물음을 자신에게 던지고 있다. 이처럼, 작품의 사상이 전개될수록 화자가 지닌 내적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 03.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 ① 제1수는 시상 전개와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 그렇다. <제1수>에 등장하는 “충효”의 가치는 화자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시상 전개와 단서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 ▶ 그렇다.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에서 “마음에 하고자” 했던 “충효”와 관련이 있다. 저것 때문에 “십 년을 허둥대”었고, “공명이 닳”았으니까.
- ③ 제3수의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 ▶ 아니다. ‘임천’의 좋은 점은 오히려 <제3수>의 종장에서 드러난다. “무심어 조는 절로 한가하나니”라는 구절이다. 강호에서의 삶은 “무심어조”라는 시어를 통해 매우 한가하다는 장점이 드러난다. 한편, <제2수>에는 ‘임천’의 좋은 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명을 이루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있을 뿐이다.
- 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 ▶ 그렇다. 초장과 중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제2수>에서 말하는 “공명”을 통한 충의 실현, <제3수>에서 ‘임천’으로 등장하는 강호에서의 삶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 그렇다. <제5수>에서는 <제4수>에 등장했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초장에서 “어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장에서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변주는 큰 틀에서 본다면, 반복 속에서 약간의 변형이 가미된 것이라 생각하면 좋다.)



<리마인드 4>

[04~0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8학년도 6월 편집>

(가)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A]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 간혹 작품 앞에 평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평설들은 '긴 <보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된다. 어찌 되었든, 이 평설은 우리가 다음의 작품을 어떻게 읽을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평설은 '현재형'과 '과거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다음 작품을 읽을 때엔, 작품에서 '과거형'과 '현재형'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집중하며 읽을 필요가 있겠다.

선지 역시 평가원의 해석이며, 다소 긴 <보기>인 평론 부분과 선지가 호응할 것이므로, 너무 어려운 말에 집착하지 말고 각 내용이 서로 어떻게 대응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읽어보자.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별별 떨면서  
아버지 가래가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 화자는 '어머님'을 부르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닐곱 살 적 겨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과거의 화자는 "목포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에 살았으며, 그 집은 "외풍" 때문에 "한없이 추웠"다고 밝힌다. 이렇게 추운 겨울밤에 화자는 "아버지가 가래가 사이로 ~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잘 수 있었다고 한다. 맥락 상 아버지로 인해 추위를 막아줬겠지.

제시된 장면을 한 번 머릿속에 그려보자. 낡은 목조 건물의 추운 방

안에서, 추위에 벌벌 떨며 아버지의 품속에 꼭 안겨있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감각이 주는 필연적 상상력을 생각하라.)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B]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 이 연에서 화자는 "요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시간이 변했다. 무엇이 변했을까. 1연은 화자가 "예닐곱 살 적"이었던 과거였다면, 이 곳은 화자 자신이 아버지가 된 현재 시점이다. 화자는 마치 아버지가 가래가 사이로 자신을 보호했듯,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자신의 과거가 떠오른다고 한다. 하지만, 화자를 품어주던 "그 가슴"은 이미 "한 줌 뺏가루"로 삭았으며,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는 상태라고 한다. 1연에서 화자를 품어주던 대상이 화자의 아버지였음을 떠올려 본다면, 2연의 시점에서 화자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임을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화자는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어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짙 짙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화자는 다시, "오늘" 겪었던 일을 어머님께 이야기한다. 화자는 "한강교"를 지나던 도중,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해 있음"을 목격했다고 말한다. 이것만 봐선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화자가 "한강교"를 지나다가 무엇을 보고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를 떠올렸을까.

화자는 "품 안에 부드럽고 어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 바다로 가라고, / 짙 짙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강의 모습을 보았나보다. 겨울철 강의 모습을 본 학생이라면 이 부분이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추운 겨울날, 강가만 얼어붙고 강의 중심부는 천천히 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다. 화자는 이를 보고, '여린 물살'을 어린 시절의 자신에 대입시키고, 얼어붙은 강가의 모습을 아버지에 대입시킨 것이다. 마치 가운데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강가가

추위를 받아내는 것 같지 않겠는가.

화자는 이 광경을 보고, 추운 겨울날, 외풍을 받아내며 자신이 잠들 수 있게 도와줬던 아버지의 희생적인 모습을 떠올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아버지, 아버지……”라는 시행을 통해 드러내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04.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

▶ 그렇다. 화자는 1면에서부터 ‘어머님’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이 전개 과정에서 화자는 자신의 “예닐곱 살 적”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요즘”의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까지 말하고, “오늘” 보았던 한강물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화자는 “요즘”에 아이들을 키우며 과거의 아버지를 떠올리기도 하고, “오늘” 한강을 보며 과거의 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떠올리기도 한다. 따라서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개 방식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②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적 현재의 의미를 생성해 낸다.

▶ 아니다.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은 화자의 현재 위치가 아니다. 그곳은 화자가 ‘예닐곱 살 적’에 살았던 집이며, 과거의 경험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다.

③ ‘옛날처럼 나는’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그렇다. 화자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불깃을 덮어주며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시간은 현재의 순간이라 할 수 있는 ‘요즘’이다. 이 시간에 화자는 ‘아버지 곁에 눕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소망은 화자의 과거 경험에서 온 것이다. ‘옛날처럼 나는’이라는 구절이 이 소망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기원한 것임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다.

④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 드러난다.

▶ 그렇다. 화자는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본 현재의 풍경을 두고 자신이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경험을 떠올린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풍경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통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⑤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 그렇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기도 하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한다. 화자는 과거 아버지의 모습을 현재의 얼어붙은 강변에서 찾아내고 있다. 과거의 아버지를 현재의 이승의 존재로 치환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를 통합시키는 것으로, 시간의 모호성을 잘 보여 준다.

05. [B]를 중심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모습이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 화자에게로 이어짐을 보여 주는군.

▶ 그렇다. 화자의 아버지는 벌써 떨어져 있는 화자를 꼭 껴안으며 외풍으로 인한 추위를 막아준다. 화자는 추운 밤이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불깃을 덮어준다. 이 두 행위가 별개의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화자가 아이들에게 이불깃을 덮어주는 행위로부터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린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화자 자신이 아이들을 위해 한 행동이 모두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통함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그렇다. 화자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다. 또한, 마지막 연에서도 한강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 아버지……’라고 말한다. 화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버지’를 연거푸 부르는 것은 자신의 애통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말줄임표(……)까지 활용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③ ‘한 줌 뺨가루’의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얽혀 있어’는 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그렇다. 화자의 돌아가신 아버지는 ‘뺨가루’가 되었다. 한편, ‘뺨가루’는 흰색이며 ‘얼음’은 ‘하얗게’ 얼 상태이다. 이러한 흰색의 이미지는 화자가 둘을 연관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이를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얀색’이라는 시각적 요소를 사용한 것이다.

④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과 ‘팡 팡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를 통하여,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 주셨던 아버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 아니다.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과 ‘팡 팡 얼어붙은 잔등’이 대비된다 하더라도(따뜻함-차가움의 축약으로), 이는 모두 자식을 위한 내면의 의도와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버지는 안으로는 화자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면서, 등로는 찬바람을 막아주셨던 것이다.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랑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를 연결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군.

▶ 그렇다. 화자는 2면에서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다는 소망을 말하는데, 이 소망은 1면에서의 화자가 ‘예닐곱 살 적’ 아버지와 겪은 일과 큰 연관이 있다. 이 연결로부터 부재하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리마인드 5>

[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오이밭에 별배채\* 통이 지는 때는  
산에 오면 산 소리  
별로 오면 별 소리

▶ “오이밭에 별배채 통이 지는 때”라는 배경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별배채 통이 지는 때”가 어느 때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자. 어느 특정 시기에 정도로만 해석하자. **[일반적 사고]**

한편, 화자는 바로 그러한 시간에 “산”과 “별”에서 “산소리”와 “별소리”를 듣는다.

산에 오면  
큰솔밭에 빼꾸기 소리  
잔솔밭에 덜거기\* 소리

▶ 1연에서 말했던 “산”에서 구체화되어 이어진다. 정확히는 “산 소리”에 대해 말한다. 1연과 마찬가지로 “산 소리”는 “빼꾸기 소리”, “덜거기 소리” 등의 청각적 심상을 제시한다.

별로 오면  
논두렁에 물닭의 소리  
갈밭에 갈새 소리

▶ 다음으로 공간적 배경이 “별”에서 이어진다. 산과 별의 병렬적 구성인 듯하다. “별 소리”에는 “물닭의 소리”와 “갈새 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런 “산 소리”와 “별 소리”가 어떻게 자꾸 얘기하는 것일까.

산으로 오면 산이 들썩 산 소리 속에 나 홀로  
⑦ 별로 오면 별이 들썩 별 소리 속에 나 홀로

▶ 화자는 “산”에 간다. “산이” 하필 “들썩”이며 “산 소리”가 난다. “별”에 가기도 한다. 그러더니 별이 하필 “들썩”이며 “별 소리”가 난다. 화자는 그 속에 “나 홀로” 있다. 분명 앞의 두 연을 통해 “산 소리”에는 “빼꾸기”와 “덜거기”의 소리가 있다고 했으며, “별 소리”에는 “물닭”과 “갈새”의 소리가 있다고 했다. 그 소리는 들썩거림의 원인일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화자는 산과 별 “속에 나 홀로”를 강조하고 있을까.

정주 동림 구십여 리 긴긴 하룻길에  
산에 오면 산 소리 별에 오면 별 소리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

▶ 이제 작품의 제목인 “적막강산”의 의미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화자는 마지막 행에서 “적막강산에 나는 있노라”고 말한다. 이게 바로 4연의 산과 별 속에서 “나 홀로”를 강조했던 이유다. 아무리 산에서 “산 소리”가 나고 별에서 “별 소리”가 난다 해도 “나 홀로”인 화자에게는 오히려 격막

감과 외로움의 경서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즉 이를 통해 화자는 산, 별과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대비적 거리를 드러내며,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시의 대부분의 사물들은 상황, 정서 등을 환기하기 위한 객관성 상관물이다.]**

— 백석, 「적막강산」 —

\* 별배채 : 들 배추, 야생 배추의 방언.  
\* 덜거기 : 늙은 장끼.

(다)

장부의 하울 사업 아는가 모르는가  
효제충신(孝悌忠信)밖에 하울 일이 또 있는가  
어즈버 인도(人道)에 하울 일이 다만 인가 하노라

<1장>

▶ 화자는 초장과 중장을 통해 “장부”는 “효제충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종장에서조차 마찬가지다. “인도”에는 할 일이 “효제충신” 말고 없다. 그만큼이나 “효제충신”을 중시 여기고 있다. 단어가 어렵다면 유교적 질서 정도로 일반화시켜 기억하면 좋겠다. **[일반적 사고]**

남산에 많던 솔이 어디로 갔단 말고  
난(亂) 후 부근(斧斤)\*이 그다지도 날랜시고  
두어라 우로(雨露)곤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2장>

▶ <2장>에 들어서는 “남산”의 “솔(소나무)”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솔”들에 대해 “어디로 갔단 말고”라고 말하는 걸 보니, “솔”이 많이 없어졌나보다. 종장에서는 그 이유가 나온다. “난 후 부근” 때문이란단다. “난”은 전쟁을 의미한다. 하지만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저 “부근”이 도끼라는 것을 주석을 통해 이미 알 것이고 그렇다면 날랜 도끼 질 때문에 소나무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화자는 종장에서 도끼질로 인해 소나무들이 사라진 이 상황에 대해 “두어라 우로 곤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라는 태도를 보인다. “우로”로 인해 소나무가 다시 자라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대감으로 보아도 무방하겠다.

창밖에 세우(細雨) 오고 뜰 가에 제비 나니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저 제비 비비(飛飛)를 보고 한숨 겨워하나니 <3장>

▶ <3장>에서는 “세우(가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화자는 “제비”를 보고 있다. 종장에서는 “적객의 회포”가 “끝이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적객”이 누굴까? 당연히 화자일 것이다. (고전에서는 특수한 대상을 화자가 기술하지 않는 이상 화자 자신의 정서와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화자는 지금 유배당한 신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종장에서 화자가 “제비 비비”를 보고 “한숨 겨워”하는 이유도 알 수 있다. 유배 와서 고립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비는 왜 기술된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제비의 ‘비비’라는, 즉 제비가 날고 있는 감각에서 추론해야 할 것이다. 제비는 날고 있는데, 유배지에 고립된 자신의 처지가 대비되기 때문일 것이

다.(모든 시의 사물들은 상황, 정서 등을 환기하기 위한 객관성 상관물이  
다. + 감각이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감상이다.)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空樑)\*의 제비로다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어즈버 내 풀어낸 시름은 날로만 하노라 <4장>

- ▶ <4장>의 초장에서는 “적객에게 벗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만큼 유배 생활이 외롭다는 것이다. 그러한 벗이 없음을, 그래서 들보에 있는 제비를 바라보고 있는데, 종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지저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시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인도 유배로 인해 시름이 많고, 아울러 다른 대상보다 더 많음을 종장에서 밝히고 있다.

인간(人間)에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천 리를 멀다 아녀 간 데마다 따라오니  
어즈버 반가운 옛 벗이 다만 넝가 하노라 <5장>

- ▶ 이번엔 화자는 “명월(달)”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이 달을 친구로 삼고 있으며, “천 리”를 가도 “따라”오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화자는 달을 유일한 친구로 여기며 유배 생활의 외로움을 그나마 달래고 있는 것이다.

설월(雪月)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섞인 꽃 여윈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어즈버 호접(蝴蝶)이 이 향기 알면 애 끝일까 하노라 <6장>

- ▶ 이번엔 화자는 “설월”에 “매화”를 보려 한다. “설월”이라는 건 자를 통해 알 수 있듯, 눈에도 빛나는 달이다.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대충 ‘눈’이랑 ‘달’이라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으면 된다. 화자는 “섞인 꽃 여윈 속”에서 “향기”를 맡는다. 당연히 매화의 향기일 것이다. 종장에 들어서 화자는 이 “향기”를 “호접”이 알게 되면 “애 끝일까 하노라”라고 말한다. 매화, 그리고 매화의 암향이 주로 임금을 향한 지조와 충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 이해하기 쉽다.(고전시는 이처럼 어느 정도의 약속과 틀 안에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그 향기를 “알면 애 끝일” 존재인 “호접”은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임금이다. 화자는 이처럼 자신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임금에 대한 지조는 여전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이신의, 「단가 육장」 -

\* 부근: 큰 도끼와 작은 도끼.  
\* 적객: 귀양살이하는 사람.  
\* 공량: 들보.

06. (다)에서 화자와 대상의 관계가 (나)의 ㉔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1장    ② 2장    ③ 3장    ④ 5장    ⑤ 6장

- ▶ (나)의 ㉔에서 드러나는 화자와 대상(벌, 벌 소리)의 관계는 ‘먼 거리감’이다. (다)에서 화자와 거리감이 드러나는 소재는 <3장>의 ‘제비’이다.



## (2) 문학은 조준이다.

### <리마인드 6>

[O]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기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 이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아!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 ▶ <보기>를 먼저 보고 작품을 봤다면, 작품의 화자는 ‘춘향’일 것이며, 춘향이 가 현재 처한 상황은 ‘도련님’을 그리워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가)

향단(香丹)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 화자는 시적 대상인 ‘향단’에게 ‘그넷줄’을 밀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것도 “머언 바다로 / 배를 내어 밀 듯이”다. 그만큼이나 강하게 그넷줄을 밀어달라는 소리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자신의 그넷줄을 강하게 밀어 달라는 것일까.

‘춘향’이가 ‘향단’에게 그녀를 밀어달라는 것의 이유는 ‘도련님’을 보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보기>는 평가원의 응축된 해석이다.)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올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 ▶ 1연과 이어서 읽으면 된다. 화자인 춘향은 여전히 하늘로 표상되는 도련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 방법은 그녀를 높이 올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수양버들, 풀꽃더미, 나비 새끼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징인지 과잉 추론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신 ‘로부터’라는 반복적 표현을 통해 볼 때 ‘이’라고 지시되는 현실에서 벗어나, ‘저’라는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지향을 파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관형어는 아주 가볍게 확인하자.)

서(西)으로 가는 달 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 ▶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어째서 그녀에 타 높이 올라가는 것만 하지는 알 수 있다. 화자는 “서으로 가는 달”과는 달리 자신은 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는 그녀를 타고 높이 올라 도련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 그렇게 갈 수 없는 한계적 상황임에도, 자신을 밀어올려달라는 것은 바로 이상으로 표상되는 하늘에 대한, 바다에 대한, <보기>에 따르면 도련님과 재회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은 것이라 보면 되겠다.

- 서정주, 「추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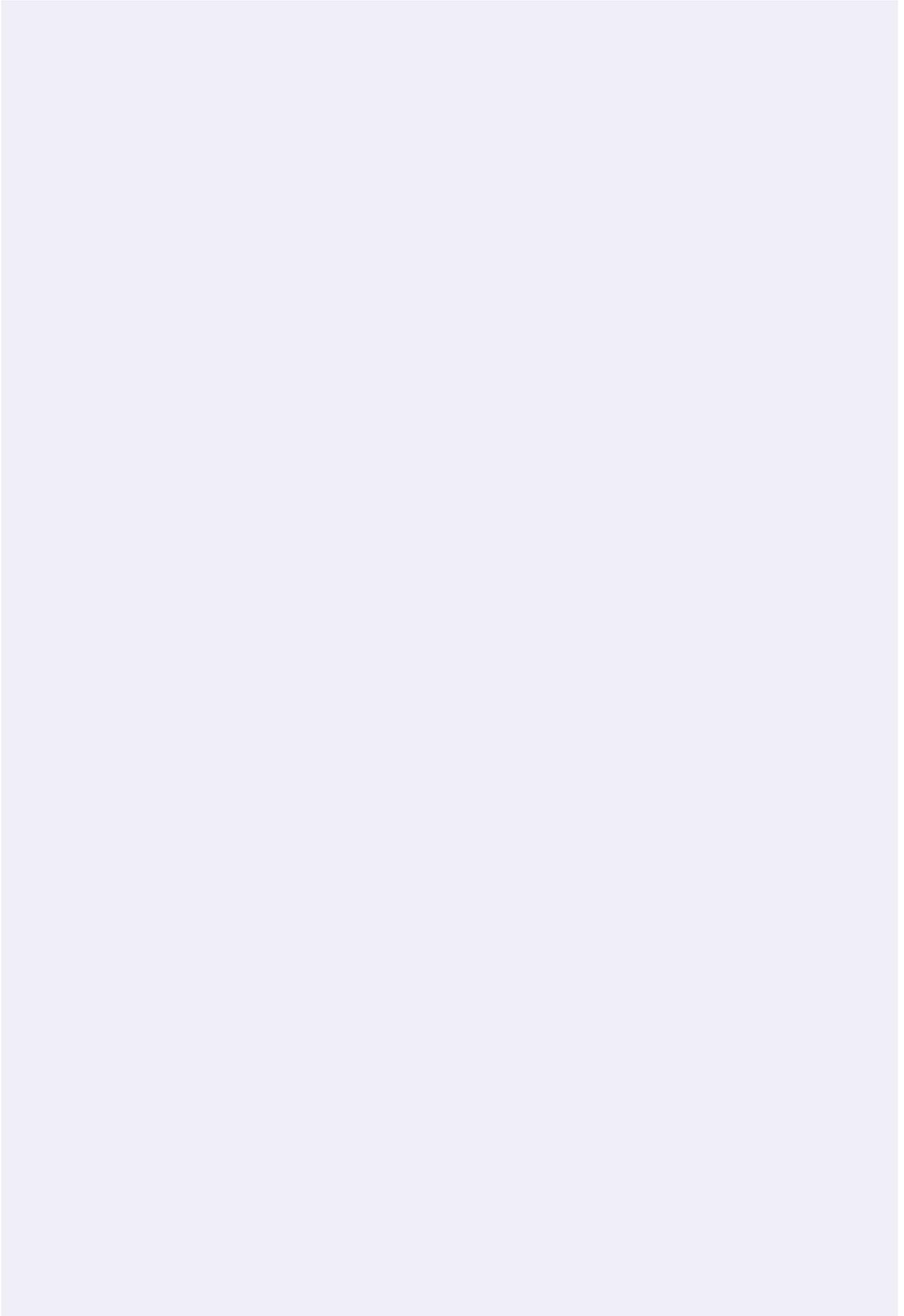
01. (가)의 시적 상황을 <보기>의 ‘꿈’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도련님이 눈물을 흘리며 훗날 기약을 당부하고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모양은 광풍에 흩날리는 조각구름일레라. 이때, 춘향이 하는 수 없어 자던 침방으로 들어가서,  
“향단아!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아라! 도련님을 생시는 만나 보기 망연하니 잠이나 들면 꿈에 만나 보지.”

- ① 실패한 사랑의 상처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미천한 신분에 대한 한탄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절대자에게 귀의하려는 의지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재회를 소망하는 간절한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 <보기>에는 ‘춘향’과 ‘도련님’의 이별이 담겨 있다. 그리고 춘향은 ‘향단’에게 ‘주렴 걷고 안석 밑에 베개 놓고 문 닫기’를 요청한다. 이유는 꿈속에서라도 멀리 떠난 도련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즉, 춘향은 도련님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따라서 5번 선지는 답이 된다.





### (3) 문학은 효율을 위한 협상이다.

#### <리마인드 7>

[0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기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詩興)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 <보기>를 먼저 봤다면, 이 작품은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를 담고 있다는 정보를 알았을 것이다. 각 수를 읽어나가며 어떤 태도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고 읽으면 쉬울 것이다. 물론 기본은 ‘시흥’을 환기하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이다.

매영(梅影)이 부딪힌 창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졌구나  
이삼(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 들어 권할 적에 달이 또한 오르더라 <제1수>

▶ 먼저, <제1수>에서의 매화는 “매영(매화 그림자)”으로 등장한다. 한 번 <제1수>에 나타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읽어볼 필요가 있다. (각각이 가져다주는 필연적 감상력) 창에는 매화의 그림자가 비치고, 미인의 금비녀가 비껴 서있다. 거기에 두세 명의 백발 늙은이들이 거문고와 노래를 즐기고 있다. 거기에 잔을 들어 권하니 달도 함께 오른다. 매화가 피었을 때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달이 ‘오르’는 상황은 그러한 풍류의 시흥을 감각적으로 심화하는 표현일 것이다. (시의 대부분의 사물들은 상황, 정서 등을 환기하기 위한 객관성 상관물이다.)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제3수>

▶ 화자는 초장부터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라고 말한다. <보기>에서 얻었던 정보와 함께 읽는다면, 이곳에서 “네”로 지칭된 것은 당연히 매화일 것이다. 화자는 눈 속에 핀 매화를 두고 “빙자옥질”이라 말한다. 그리고 중장에서는 그 매화가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한다는 점에서, 매화에 “아치고절”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아직 황혼월을 약속한다는 것이 뭔가 명확하게 확립되는 느낌은 아니다. 여차피 시가 파트는 100%의 해석이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가볍게 ‘매화와 달이 약속을 했다네.’라는 정도의 일반적 사고로 넘어감이 타당하다. 아치고절은 주석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지조

와 절개이다. 그러한 이념은 규범적인 성향을 지닐 수 있겠다. (<보기>는 평가원의 응축된 해석이다.)

바람이 눈을 몰아 산창(山窓)에 부딪히니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侵擄)하니  
아무리 얼우려 한들 봄뜻이야 앗을쏘냐 <제6수>

▶ <제6수>의 초장에서는 가혹한 날씨가 제시되고 있다. “바람이 눈을 몰”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찬 기운”은 “매화”에 닿는다. 하지만 중장에서 매화는 그에 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무리 찬 기운이 매화에 든다 하더라도, 아무리 얼게 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매화가 가진 “봄 뜻”은 빼앗기지 아니한다는, 즉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3수>에 서와 마찬가지로, 매화의 높은 절개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동각(東閣)에 숨은 꽃이 철쪽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제8수>

▶ <제8수>에서는 “건곤이 눈”으로 덮여있기에 “동각”에 숨은 꽃은 “매화”밖에 없다고 말한다. “철쪽”이나 “두견화”와는 달리 눈 속에서도 필 수 있는 꽃은 매화밖에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매화를 찬미함과 동시에 매화에 규범적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다.

- 안민영, 「매화사」 -

\* 옥인금차: 미인의 금비녀.  
\* 빙자옥질: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이 아름다운 성질.  
\* 아치고절: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 백설양춘: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0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詩興)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 ① ‘거문고와 노래’는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기 위한 풍류적 요소이다.
  - ▶ 그렇다. <제1수>에서의 매화는 “매영”으로 나타나며 풍류를 즐기는 배경이 된다. “거문고와 노래”는 그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잔 들어 권할 적에’는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 ▶ 그렇다. <제1수>에서 등장하는 풍류적 태도는 종장에 이르러 “이목고”라고 표현될 정도로 무르익는다. 나아가 이상 백발옹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잔을 건네는 모습을 감각을 통한 감상력을 통해 파악하길 바란다.
- ③ ‘황혼월’은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 그렇다. 눈 속에 핀 매화는 “황혼월”을 기억하고 있다. 그 지문의 내용을 선지와 협력해본다면, 달빛이 눈 속에 핀 매화를 비추는 아름다움을 심미적인 감상이라 표현한 것이다.
- ④ ‘아치고절’은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가치이다.
  - ▶ 그렇다. “아치고절”의 의미인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에서 ‘우아한 풍치’는 심미적인 가치를, ‘높은 절개’에서는 규범적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 ⑤ ‘봄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 ▶ 아니다. 당대의 이념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봄뜻’의 의미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눈 속에서도 피는 매화의 생명력으로도 볼 수 있고, <제8수>의 “백설양춘”과 연결해본다면, 이른 봄을 나타내는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사실 <보기>이다. <보기>는 여러 가지의 태도의 감상을 제안했는데, 국한한다는 것은 <보기>와 상반되는 경해이므로 해당 선지는 타당하지 않다.